

2018 년 9 월 8 일 “(참된 공동체 6)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빌 2:15-18)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사도의 권유를, 본 교회의 말씀묵상 교재인 ‘매일성경’(성서유니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특징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씀 묵상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리는 ‘말씀묵상’

우리 삶의 어떠한 정황에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반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의 동기를 제공하는 인간 생각의 세계에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만으로 살지 않고 실제로 행동, 표현, 말로 삽니다.

따라서 행동의 동기가 되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생각의 동기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묵상의 방식을 매일성경(성서 유니온)으로 함께 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가이드’ 참조)

[2] 매일성경 연습

매일성경의 해당 본문을 통해 묵상하시고 묵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뒷면의 묵상 가이드를 읽고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나의 좋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조금씩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묵상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사와 섬김과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삶의 활력(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17-18 절).

<맺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묵상에 투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주는 기쁨보다 말씀을 담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솟는 진정한 기쁨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길로서 말씀 묵상을 소개했습니다. 말씀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나는 말씀 묵상 생활을 어떻게 하며, 언제, 어디서 배웠고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말씀 묵상 가이드>

1. 당일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점검하세요.
 - (1)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2) 오늘 말씀이 내면에 잘 흡수되어 인격과 행동으로 성육되기를 바라는가?
 - (3)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삶의 지평을 넘어서기 원하는가?
(요즘 상황 속에서 어렵고 고민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 (4)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즐거움, 슬픔, 괴로움, 화남, 부끄러움, 질투심, 소외감, 혼동, 걱정...)→ 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2. 본문을 마치 편지를 읽듯이 천천히 읽으세요(2-3 번).
3. 읽은 내용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공란에 적어보세요.
4. 나는 오늘 발견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지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5. 결단의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 분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며 제가 오늘 ~~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권세와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